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26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과수연구과장	고승찬	☎ 760-7400
		업무담당자	이현주	☎ 760-742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기존 감귤하우스 활용 제주형 저수고 바나나 개발 박차

- 시설비·난방비 부담 낮춘다...저수고 유망 품종 육성, 연 1회 생산 가능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기존 감귤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는 ‘제주형 저수고 바나나’ 품종과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는 연 1회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.

* 저수고(低樹高) 바나나: 기존 바나나보다 키가 작은 바나나

○ 새 품종은 나무 높이를 2.3m 이하로 낮춰 기존 감귤하우스에서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, 생산 시기를 조절해 겨울철 난방 온도를 현재보다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. 농업기술원은 품종과 재배기술을 2028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.

□ 2026년 제주지역 바나나 재배면적은 5.6ha(8농가)로 2018년 17.2ha(27농가)보다 크게 감소했다. 높은 시설 투자비와 난방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.

○ 바나나는 높이가 4~5m까지 자라 기존 감귤하우스에서 재배하기 어렵다. 전용 하우스 설치비는 10a당 약 9,900만 원으로 감귤하우스보다 약 39% 더 든다.

○ 기존 연속재배 방식은 나무마다 생육 속도가 달라 연중 약 22℃로 온도를 관리해야 한다. 그러나 유류비 부담으로 온도를 낮추면 과방 무게가 줄고 꽃대 생육이 불량해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.

* 과방: 한 꽃대에 달린 바나나 열매 전체 묶음

□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 높이 2.3m



이하, 과방 무게 30kg 이상, 후숙 당도 17브릭스(° Bx) 이상을 목표로 제주형 저수고 품종을 육성하고 있다.

○ 현재 우수 개체 9개를 선발했으며, 추가 검정을 거쳐 2027년 품종 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□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연 1회 생산체제도 개발한다.

○ 생육이 균일한 조직배양묘를 기존 나무 사이에 시차를 두고 심는 ‘사이식재’ 방식을 적용해 현재의 3년 2기작 중심 재배체계를 매년 한 차례 수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.

○ 개화기와 성숙기를 계획적으로 조절하고 나무의 생육을 균일하게 관리함으로써 겨울철 최저 15℃ 수준에서도 안정적으로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.

□ 농업기술원은 저수고 품종과 연 1회 생산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기존 감귤하우스를 활용해 초기 시설 투자비를 줄이고 겨울철 난방비도 낮출 수 있어 감귤 대체 작목으로서의 바나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이현주 농업연구사는 “제주형 저수고 바나나 품종이 개발되면 기존 감귤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어 농가의 시설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변이육종으로 품종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연 1회 생산기술도 함께 확립해 농가에 조기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